

광주 군공항 이전 어떻게 되어나



광주시가 최근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무안, 신안, 해남, 영암 등 전남지역 후보지를 돌며 단체장 면담을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군공항 활주로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안·신안·해남·영암군 상대

뜨거운 설득
싸늘한 반응

“광주시 너무 성급” 지적도

광주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최근 무안과 신안, 해남, 영암 등 전남지역 후보 지역을 상대로 접촉에 나섰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광주 군공항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포함되면서 군공항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성급한 행동’에 대한 전남 지역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밑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 신안, 해남, 영암 등 전남 지역 4개 군(郡)을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 예정지로 압축한 광주시군공항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잇달아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해당 지자체 실무진을 만나 광주군공항 이전 절차와 이전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군의원 등과의 간담회 일정을 잡아 출정을 요청했다.

시는 간담회 일정이 잡히면 국방부와 함께 이전 후보지를 방문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다음달 주민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광주시가 지역을 돌며 본격적인 지역민 설득에 나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광주시가 일단 해당 지자체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지자체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특히, 무안과 해남은 단체장이 공식이라서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이 광주시 관계자를 만나는 것은 더욱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다른 지역 단체장들도 표를 의식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너무 성급하게 처신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우리 지역이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알려지면서 지역민의 원성이 높아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앞장서서 광주시 관계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광주시와 국방부는 2022년까지 5조7000억원을 들여 새 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개발 등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군 공항 이전 사업 내용과 4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전 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또 광주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도 비슷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안고 있는 수원과 대구를 잇달아 방문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패방지·국가경쟁력 제고 필수 관문



공수처,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3 검찰개혁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선공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최우선 공약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었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박상기 교수를 임명하고,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대대적으로 쏘아올렸다.

이후 법무부에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의 첫발로 법무부 탈검찰화를 내딛고, 두 번째 과제로 지난 18일 공수처 설치 방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도 개혁위의 권고 방안을 최대한 반영해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된 제3의 수사기구로서, 정치인, 검사, 판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관련된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특히 공수처가 신설되면 그동안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공수처의 필요성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당사자인 검찰의 반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끝내 이루지 못했다. 공수처 설치법도 지난 2002년 처음 국회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

정치인·검사·판사 등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부패 수사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기소권 분산 검찰 견제 효과

부정부패 막고 청렴지수 올리면 연 4% 경제성장 가능

에 상정된 이후 수많은 법안이 보수 정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6월 전국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과제 최우선 순위로 검찰개혁(24%)을 꼽았다.

앞서 지난 4월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실시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조사가 실시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조사는 총 1003명 중 79.6%의 국민이 찬성이라고 답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의당 등 야당 또한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걸었고, 국민 여론까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는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

다만 일부이긴 하지만, 검찰과 정치권에서 공수처 설립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

는 탓에 설치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공수처는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육상육’으로, 공수처가 설치된 해외사례에서도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외국과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로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해외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 공수처와 같이 고위공직자, 정치인의 부패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구는 세계 각국에 존재하고 있으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나라가 같은 아시아 내 싱가포르와 홍콩이다.

싱가포르에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설립한 ‘탐오조사국’이 있으며, 공직자와 민간인 제한 없이 뇌물 등 부패범죄가 있

으면 어떤 사건건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히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더라도 부정할 의도만 확인되면 처벌할 정도로 엄격하다.

싱가포르는 1960년대만 해도 부패가 만연했던 국가로, 당시 리관유 총리는 “부패문제는 국가생존의 문제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탐오조사국을 설치했다. 싱가포르 이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청렴국가이자,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로 거듭났다.

정부가 공수처 설치에 나선 것도 단순히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떠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세계 반부패운동을 주도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는 올 1월 ‘2016년 국가별 국가청렴도지수(CPI)’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6개국 중 52위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도 37위에 비해 15계단이나 추락한 것이다.

반면 싱가포르의 7위(84점)로 아시아권에서 순위가 가장 높았고, 홍콩이 15위(77점)로 그 뒤를 이었다. 청렴점수가 10점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1%p 오른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면, 우리나라의 청렴점수를 홍콩수준으로만 끌어 올려도 연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한다. 이는 국민이 공수처 설립을 바라는 또 하나의 이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197) 소방관

“신이시여/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힘을 주소서//너무 늦기 전에/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그리고/신의 뜻에 따라/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신의 은총으로/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어느 소방관의 기도’ 중에서>
강릉 경포 석란정 화재 진압 중 무너진 건물에 매몰되어 소방관 2명이 순직했다. 순직 소방관 뉴스를 접할 때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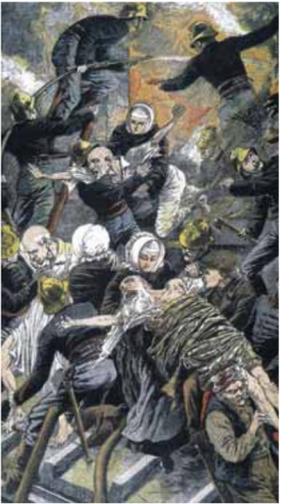
“화염 속에서도 생명을 구할 힘을 주소서”

절제절명의 위험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소명의식에 목이 메어온다. 소방관들에게는 이기적인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직업윤리, 열정, 뜨거운 인간애가 있는 것 같다. 아니 이렇듯 빈약한 몇 개의 단어로는 이 숭고한 소방관들의 이타적인 희생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안타깝기만 하다.

‘렌 근처 병원의 화재에 뛰어든 소방관들’(1906년)은 프랑스 일간지 르 프티 주르날 지에 실린 삽화다. 백년도 넘은 정도로 오래전 화재 현장임에도 무시무시한 상황은 지금 눈앞의 일처럼 공포스럽다. 번뜩이며 타오르는 불기둥, 시커멓고 검은 연기 구덩이에서 불길에 잠겨 자신의 인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방

호스를 들이대는 소방관들의 몸짓이 필사적이다. ‘살려 달라’는 단말마적인 고통과 비명도 휩싸인 환자를 구하는 소방관들의 손길이 구세주같다.

삽화를 그린 이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대가의 작품과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려 한’ 소방관들의 헌신의 순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깊은 울림을 준다. ‘화재에 뛰어든 소방관들’의 삽화가 수록된 책 ‘궁극의 리스트’의 저자 올베르토 에코(1932~2016)는 이 책에서 인류가 쌓아온 문화의 기원과 인간의 욕망, 지옥 같은 혼란의 여러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임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광주폴리부장·미술사 박사>



‘렌 근처병원 화재에 뛰어든 소방관들’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